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3년 9월 조사 -

2023년 10월 4일
주식회사데이터큐레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경기는 2개월 연속 소폭 악화

~ 에너지 등 코스트 부담 증가와 소비자의 절약 정신이 높아져 ~

(조사대상 2만 6,991사, 유효회답 1만 1,039사, 회답율 40.9%,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3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4.4로 2개월 연속 악화하였다. 국내경기는 에너지 등 비용 부담 증가와 절약 정신 고조 외에 해외 경제 정체도 더해져 소폭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업종에서 하락세가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계속되는 임금인상이 열쇠가 되어 가격전환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개선과 가계의 절약 정신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 엔저(円低), 미국·유럽·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큰 부담이 되어 3년 5개월만에 전 10개 업종에서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8개월 만에 10개 지역 모든 곳이 악화되었다. 강우량이 적어서 관광지는 견조하였지만 소비자의 절약 정신과 물류의 정체 등이 각지의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3개월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 일차경기 DI는 실버위크 후반에 47.5(23-24일)를 기록하였다. 기간 중에는 많은 날이 전월(44.9)을 상회하였지만 26일 이후 급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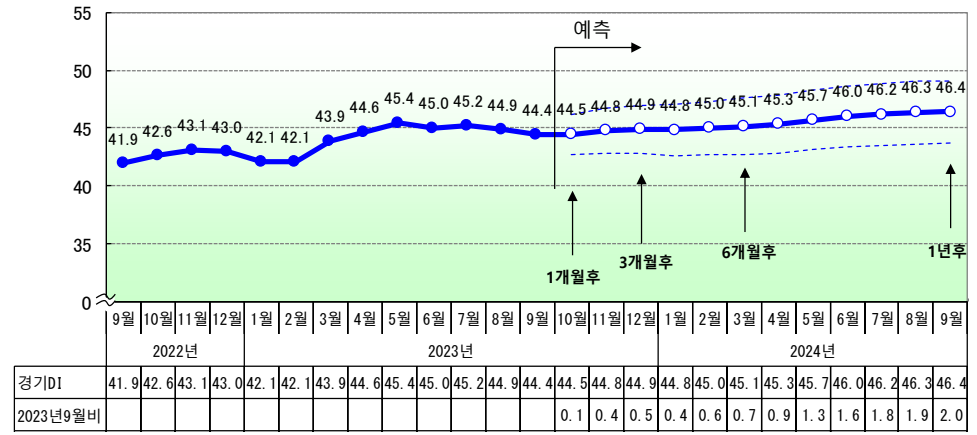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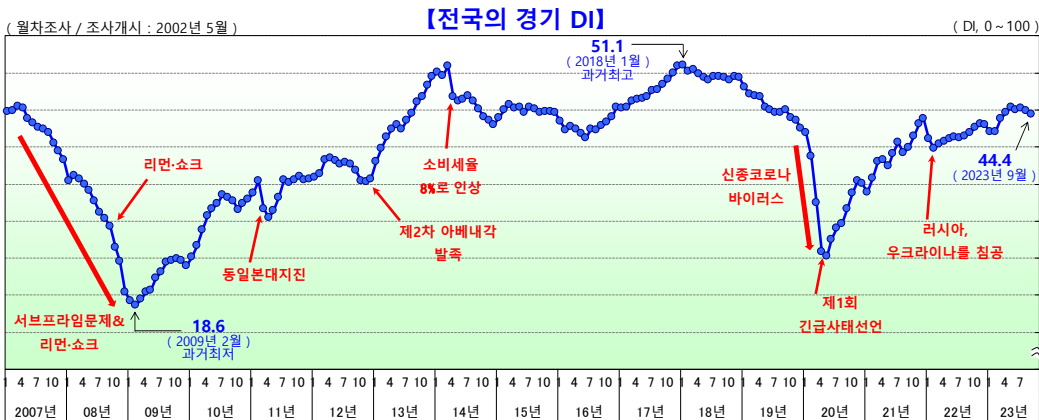
< 2023년 9월의 동향 : 소폭 악화 경향 >

2023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4.4로 2개월 연속 악화하였다. 규모·10개 업종·10개 지역의 모든 것이 악화된 것은 2020년 4월(동 6.7포인트 감소)이래 3년 5개월만이다. 국내경기는 에너지 등 비용 부담 증가와 절약 정신 고조 외에 해외 경제 정체도 더해져 소폭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업종에서 하락세가 계속되었다.

원재료 가격과 휘발유 등 에너지 비용의 고공행진과 함께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절약 정신의 고조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또한 중국 외 해외 경제의 감속,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도 악재이다. 한편 호재로는 적은 강우량과 인바운드의 순풍을 받은 관광 DI가 4개월 만에 개선, 반도체 부족 완화로 인한 자동차 생산의 호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 10월 개시하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시스템 수요 등을 들 수 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플러스 요인으로 설비투자자와 인바운드 확대 등이 견인책이 될 것이다. DX와 탈탄소화 추진, 정부에 의한 경제대책 실시, 가격전환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개선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생활 필수품의 가격상승과 일손 부족의 장기화, 2024년 문제 등도 경기의 하락세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전망, 환율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계속되는 임금인상이 열쇠가 되어 가격전환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개선과 가계의 절약 정신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전 10개 업계가 악화, 비용증가 및 엔저(円低), 해외경제 감속이 악재로

• 2020년 4월 코로나19 이래, 3년 5개월 만에 10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원재료 가격과 휘발유 등 에너지 비용의 고공행진, 엔저(円低)의 영향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이외의 해외 경제의 정체감과 길어지는 폭염 등도 하락세의 요인이 되었다.

• **『금융』 (46.8)** …전월 대비 2.0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거래처의 업적이 악화 경향으로 느껴진다」(보통은행)와 같은 목소리 외에, 리스캐줄링 등의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또한 가계 부담 증가의 영향 등으로 「보험을 재검토하는 사람들이 늘었다」(손해보험대리)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엔저와 주가 상승이 순풍」(증권투자자산탁위탁)등 일부에서는 밝은 목소리도 들렸다.

• **『서비스』 (50.4)** …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폭염과 가격 증가가 악재가 되어 「오락서비스」(동2.6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악화하였다. 클라이언트의 발주량이 감소하였다는 목소리도 있는 「인재파견·소개」(동2.0포인트 감소)도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판매단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때 보다 더 이익이 감소」(소프트수탁개발)와 같이 「정보서비스」(동0.9포인트 감소)도 2개월 연속 하향하였다. 다만 인보이스 관련 등 IT투자는 견조하여 24개월 연속으로 50대를 유지하였다. 한편 실버위크로 인한 변화함과 인바운드 등으로 「료칸·호텔」(동2.1포인트 증가)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렌터카 등 「리스·임대」(동0.2포인트 증가)는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소매』 (41.4)** … 동 0.4포인트 감소. 5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폭염이 계속되어 가을 상품의 움직임이 안 좋다는 목소리가 들린 「섬유·섬유제품·복식품 소매」(동4.6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광열비 등의 경비 증가가 부담이 된 「의약품·일용잡화품 소매」(동0.1포인트 감소)는 5개월 연속으로 악화하였다. 대기업 중고차 판매점의 문제로 인해 업계 전체에 불신이 심해지고 있다는 등 혹독한 의견이 있는 「자동차·동 부품 소매」(동0.3포인트 감소)는 3개월 만에 하향하였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구매를 자제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각종 상품 소매」(동2.6포인트 감소) 도 3개월 만에 악화하였다.

• **『제조』 (40.8)** …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원재료 급등 등으로 단골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는 「기계제조」(동1.6포인트 감소)와 생산량의 하락이 보이는 「철광·비철·광업」(동0.1포인트 감소)은 2개월 연속으로 하향하였다. 「화학품제조」(보합)는 자동차 관련이 호조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나 중국경제의 감속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한편 반도체 부족이 완화되어 자동차 생산의 회복이 보이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2.1포인트 증가)는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안건 증가의 목소리와 설비 가동에 개선이 나타난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동1.3포인트 증가)는 3개월만에 상향하였다.

		22년 9월	10월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35.8	36.4	37.7	37.9	37.4	38.9	41.6	42.2	44.8	46.7	42.5	43.0	42.1	▲ 0.9
금융		43.6	43.2	44.5	44.3	44.8	43.3	44.0	45.0	47.8	48.1	47.4	48.8	46.8	▲ 2.0
건설		44.0	44.2	44.9	44.6	44.1	43.7	45.5	45.6	46.9	46.8	47.8	47.4	47.1	▲ 0.3
부동산		45.3	44.0	45.6	44.8	46.1	46.3	47.5	49.6	50.7	50.3	48.8	49.6	48.5	▲ 1.1
제조	음식료품·사료제조	35.5	38.2	38.8	38.3	38.1	37.0	41.1	42.0	43.7	43.6	43.1	44.5	42.6	▲ 1.9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2	35.7	36.5	37.9	37.7	39.0	38.6	41.0	42.1	42.0	43.6	42.6	43.0	0.4
	기계·기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0.2	40.9	41.9	41.0	38.0	37.6	37.0	39.7	39.0	38.4	37.9	38.2	39.0	0.8
	철·강, 종이·종이가공품제조	38.0	40.4	40.2	39.2	39.8	36.6	38.6	37.6	38.6	35.8	36.1	36.1	36.9	0.8
	출판·인쇄	30.0	31.8	32.9	32.4	31.7	31.6	34.3	33.9	35.4	33.9	33.4	33.9	32.3	▲ 1.6
	화학품제조	42.3	40.8	40.8	41.5	40.3	39.2	40.1	41.0	40.6	41.6	41.8	41.2	41.2	0.0
	철강·비철·광업	43.0	43.9	43.6	43.1	41.7	41.0	41.9	41.1	40.9	40.4	40.7	39.9	39.8	▲ 0.1
	기계제조	45.4	45.8	45.9	44.9	43.3	43.7	43.4	43.8	42.9	41.9	42.9	42.8	41.2	▲ 1.6
	전기기계제조	45.2	44.8	45.4	44.5	43.3	43.2	42.8	43.2	43.1	43.9	42.9	42.8	42.4	▲ 0.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0.2	42.2	42.1	41.0	38.7	39.6	41.2	41.5	43.0	44.6	46.2	46.2	48.3	2.1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6.2	46.1	46.1	46.3	46.5	49.0	46.8	45.6	46.2	46.8	45.4	42.9	44.2	1.3
	기타제조	37.5	35.4	35.9	37.0	39.1	36.1	40.8	41.9	42.7	42.3	43.8	40.3	40.5	0.2
	전 체	41.1	41.6	41.9	41.5	40.4	40.4	41.0	41.0	41.4	41.5	41.3	41.5	41.2	▲ 0.4
	도매	음식료품도매	35.8	37.4	38.8	38.2	37.5	38.3	42.1	44.3	45.2	44.9	46.4	47.1	45.8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29.9	32.4	33.1	34.0	34.7	35.9	38.0	41.9	43.1	39.4	39.5	38.0	38.1	0.1
기계·기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7.5	39.8	39.5	40.2	38.3	37.2	38.0	39.1	38.4	37.3	38.4	38.0	38.1	0.1
출판·인쇄·서적도매		34.5	37.1	37.0	33.8	34.8	35.6	37.3	37.9	40.3	36.5	38.2	38.6	38.5	▲ 0.1
화학품도매		43.4	42.6	43.8	43.5	42.8	41.7	43.5	44.9	46.8	45.3	45.2	45.1	44.5	▲ 0.6
정밀기계·기구도매		47.0	46.3	43.5	46.2	43.3	43.2	41.7	43.5	40.4	38.9	42.2	40.9	43.9	3.0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9.8	39.7	40.2	39.9	38.5	37.1	37.8	37.9	38.1	37.5	37.9	34.7	36.7	2.0
기계·기구도매		43.3	44.1	44.1	43.8	43.0	43.3	45.2	45.2	46.0	45.4	45.3	44.7	43.8	▲ 0.9
기타도매		38.2	39.0	39.6	40.9	40.0	40.9	42.3	43.9	44.9	43.2	42.6	42.7	41.7	▲ 1.0
전 체		39.6	40.6	41.0	41.0	40.1	40.1	41.9	42.9	43.7	42.5	42.9	42.3	41.9	▲ 0.4
소매		음식료품소매	40.2	39.6	43.2	42.2	42.3	40.6	42.7	49.1	49.7	46.6	46.2	47.8	46.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4.9	38.7	38.1	35.4	34.2	35.7	39.7	36.6	38.3	40.4	41.4	41.2	36.6	▲ 4.6
	의약품·일용잡화품소매	39.5	38.9	40.6	39.0	37.2	38.5	42.9	47.8	47.4	45.9	45.3	42.6	42.5	▲ 0.1
	가구류소매	40.0	37.8	36.2	31.0	34.2	33.3	39.5	38.1	34.7	33.3	32.5	30.2	36.3	6.1
	가전·정보기기소매	37.1	35.1	35.3	37.2	36.3	37.5	40.2	37.8	40.5	38.6	41.3	40.2	42.7	2.5
	자동차·동부품소매	38.8	37.6	37.2	35.3	38.2	38.7	40.8	44.0	41.5	40.6	40.9	42.0	41.7	▲ 0.3
	전문상품소매	34.0	33.5	35.4	34.8	34.4	35.3	38.6	39.0	39.4	40.1	38.8	38.7	39.1	0.4
	각종상품소매	36.1	41.3	41.4	42.6	42.5	41.0	43.6	47.8	45.8	44.9	48.1	48.5	45.9	▲ 2.6
	기타소매	32.1	36.5	44.9	41.1	42.3	44.8	41.1	41.7	41.1	45.8	46.2	42.2	47.6	5.4
	전 체	36.7	36.8	38.2	37.4	37.5	37.7	40.6	42.5	42.4	42.0	41.9	41.8	41.4	▲ 0.4
운수·창고	38.2	40.7	41.6	41.6	38.9	38.0	41.2	42.1	43.4	42.2	43.5	43.3	42.8	▲ 0.5	
서비스	음식점	31.8	30.9	39.1	41.5	38.5	42.4	49.8	50.8	56.7	53.6	55.6	52.2	51.8	▲ 0.4
	전기통신	51.9	52.4	50.0	48.3	47.6	44.4	52.8	52.8	58.3	53.3	60.4	54.8	57.4	2.6
	전기·가스·수도·열공급	36.1	31.1	32.3	36.7	32.4	32.1	39.7	38.9	44.0	44.1	44.8	43.5	46.3	2.8
	리스·임대	45.6	47.5	48.4	47.4	46.8	47.4	48.1	50.5	49.7	52.1	49.8	49.0	49.2	0.2
	료칸·호텔	37.4	53.3	54.8	52.2	48.3	48.0	59.5	62.1	59.8	55.1	56.6	55.5	57.6	2.1
	오락서비스	42.2	45.0	43.8	43.2	42.1	44.1	50.9	48.9	50.4	47.6	49.3	48.8	46.2	▲ 2.6
	방송	46.1	43.1	41.7	39.5	40.7	41.1	42.6	44.7	47.4	43.1	44.7	46.1	45.6	▲ 0.5
	데이터센터·정보·권사	42.8	42.8	43.6	45.6	42.9	42.6	45.3	45.8	47.3	48.0	48.4	47.4	47.8	0.4
	광고관련	39.3	40.9	40.3	39.7	40.2	41.4	43.7	46.6	45.0	45.0	44.8	45.2	45.4	0.2
	정보서비스	53.0	52.3	53.0	53.6	53.2	53.8	55.5	55.8	56.2	56.8	57.0	56.4	55.5	▲ 0.9
	인재파견·소개	47.4	48.8	46.5	50.0	48.5	47.9	47.3	49.6	50.7	52.0	52.0	50.9	48.9	▲ 2.0
	전문서비스	49.4	49.0	48.8	48.7	48.5	49.2	50.1	50.9	52.3	51.7	52.2	51.3	51.2	▲ 0.1
	의료·복지·보건위생	41.7	43.2	43.6	42.8	42.9	41.5	42.2	41.8	44.6	44.8	44.2	43.4	42.4	▲ 1.0
	교육서비스	43.7	42.1	42.8	41.2	38.4	41.9	44.4	38.4	42.2	41.4	40.7	43.8	46.4	2.6
기타서비스	42.8	43.3	43.5	44.0	42.2	44.3	46.5	48.6	47.5	49.2	48.2	47.9	47.2	▲ 0.7	
전 체	46.3	47.1	47.3	47.7	46.6	47.4	50.0	50.8	51.6	51.6	51.7	50.8	50.4	▲ 0.4	
기타	37.2	37.9	38.2	36.7	36.5	37.0	38.2	39.2	41.2	39.8	40.9	40.8	39.2	▲ 1.6	
격차 (10개 업계별 『기타』 제외)	10.5	10.7	9.6	10.3	9.2	9.7	9.4	9.4	10.1	10.3	10.2	9.6	9.6	▲ 0.0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업계별 : 전규모가 3개월 만에 모두 악화, 코로나후 체감경기가 갈려

-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3개월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비용 부담의 고조 및 인보이스로의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기업간에 코로나 이후의 체감경기가 갈라지고 있다.
- 「대기업」 (47.8) ...전월 대비 0.2포인트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운수·창고』 에서는 경유 등 연료 가격 급등을 직면한 가운데 수송·배송 비용의 상승으로 하주의 부담감도 증대하였다. 한편으로 『소매』는 인파의 활성화로 인하여 고객의 실제 점포로의 회귀 등이 플러스 요인이었다.
- 「중소기업」 (43.8) ...동0.5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부동산』은 판매 가격이 견조한 가운데 전근으로 인한 이동의 감소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늦더위로 가을 의류 재료의 판매가 늘지 않고 기성복 소매는 5개월만에 악화하는 등 3년 5개월만에 모든 10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 「소규모기업」 (43.0) ...동0.5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정보서비스」는 업무량이 계속해서 많지만 일손의 부족감 고조 등이 하향세 요인이 되었다. 또한 계약자의 보험 재검토도 늘어나 『금융』이 크게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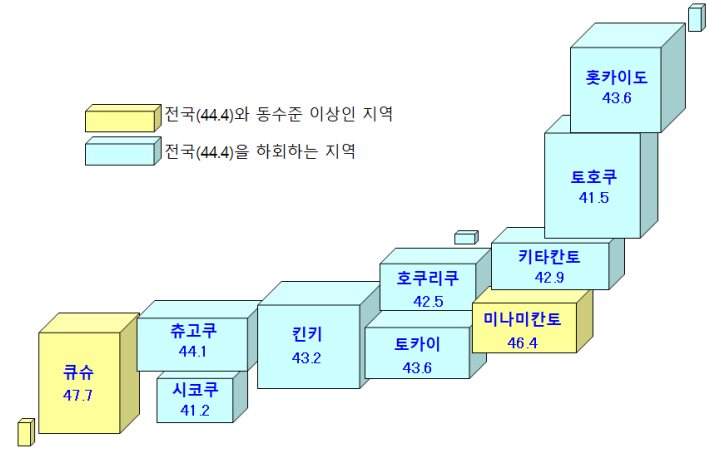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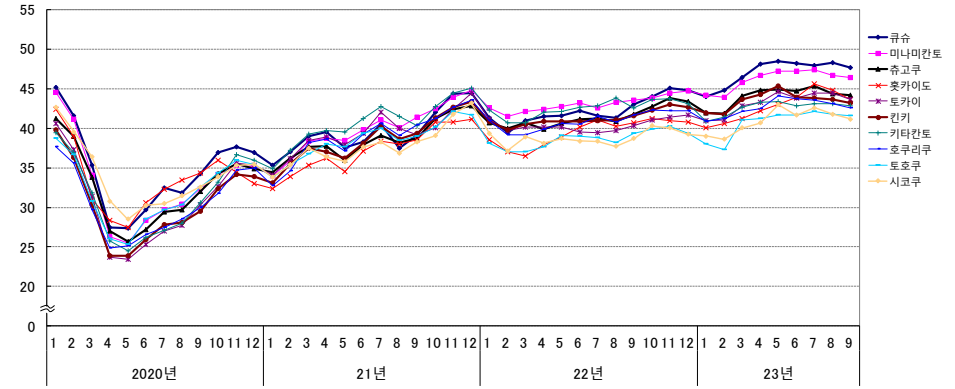
	22년 9월	10월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대기업	43.6	44.2	45.0	44.8	44.8	44.2	46.1	47.3	48.1	47.7	48.6	48.0	47.8	▲ 0.2
중소기업	41.6	42.3	42.7	42.6	41.6	41.7	43.5	44.2	44.9	44.5	44.6	44.3	43.8	▲ 0.5
(그중 소규모기업)	40.7	41.1	41.4	41.3	40.4	40.9	42.4	42.9	43.9	43.6	43.4	43.5	43.0	▲ 0.5
격차(대기업-중소기업)	2.0	1.9	2.3	2.2	3.2	2.5	2.6	3.1	3.2	3.2	4.0	3.7	4.0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8개월 만에 전 10개 지역이 악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지역의 발을 직격

- 『호쿠리쿠』 『킨키』 『시코쿠』 등 8개월 만에 10개 지역 전부가 악화되었다. 그중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악화된 곳은 7개 지역이었다. 강수량이 적어 관광지는 견조하였지만 소비자의 절약 정신과 물류의 정체 등이 각지의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또한 휘발유 가격의 상승도 악재가 되었다.
- 『호쿠리쿠』 (42.5)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지역 내 4개 현(県) 중 「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2개 현이 악화되었다. 『건설』 『도매』 등 10개 업계 중7개 업계가 하락하여 화물의 물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 저하」도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 『킨키』 (43.2) ...동0.4포인트감소. 4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시가(滋賀)」 「와카야마(和歌山)」 「교토(京都)」가 개선, 「나라(奈良)」 「효고(兵庫)」 「오사카(大阪)」가 악화되었다. 프로야구팀의 센트럴·퍼시픽 양 리그의 우승은 일부 상승세의 요인이 되었지만 중국 판매의 침체와 소비자의 구매 자제 등이 악재가 되었다.
- 『시코쿠』 (41.2) ...동0.6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지역 내 4개 현(県) 중 「도쿠시마(徳島)」 「가가와(香川)」 「고치(高知)」 3개 현이 악화되었다. 관광산업은 견조하였지만 절약 정신 고조와 조선업 등의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수주를 단념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지역별 그래프(2020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22년 9월	10월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0.7	41.2	40.9	40.8	40.1	40.6	41.2	42.2	43.0	43.9	45.6	44.8	43.6	▲ 1.2
도호쿠	39.3	39.9	40.3	39.4	38.0	37.2	41.1	41.2	41.6	41.7	42.1	41.8	41.5	▲ 0.3
키타칸토	42.5	43.7	43.7	43.1	40.9	41.4	42.6	43.3	43.4	42.8	43.1	43.1	42.9	▲ 0.2
미나미칸토	43.6	43.8	44.4	44.7	44.1	43.9	45.7	46.7	47.2	47.2	47.4	46.6	46.4	▲ 0.2
호쿠리쿠	41.7	42.3	42.2	42.2	40.9	41.2	42.1	42.5	44.0	43.7	43.6	43.1	42.5	▲ 0.6
도카이	40.4	41.1	41.4	41.7	41.0	41.1	42.8	43.3	44.6	43.8	44.4	44.4	43.6	▲ 0.8
킨키	41.5	42.3	43.0	42.7	42.0	41.8	43.6	44.3	45.4	43.9	43.8	43.6	43.2	▲ 0.4
츄고쿠	41.8	42.8	43.8	43.4	41.9	41.8	44.1	44.8	44.9	44.7	45.3	44.3	44.1	▲ 0.2
시코쿠	38.7	40.3	40.0	39.3	39.0	38.6	40.0	40.7	43.0	41.7	42.6	41.8	41.2	▲ 0.6
큐슈	43.0	44.0	45.1	44.8	44.0	44.8	46.4	48.1	48.5	48.2	48.0	48.3	47.7	▲ 0.6
격차	4.9	4.1	5.1	5.5	6.1	7.6	6.4	7.4	6.9	6.5	5.9	6.5	6.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